



연료전지 시험·인증 한곳에

부안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 평가센터, '원스톱 시험체계' 구축
올해부터 본격 가동... 기업 맞춤형 평가·인증 지원 대폭 확대키로

국내 최대 규모의 고분자 연료전지 평가센터가 부안에서 가동 중인 가운데, 기업들의 활용도가 빠르게 늘어 주목받고 있다.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내에 위치한 평가센터는 연면적 1,332㎡ 규모로, 연료전지 스택부터 시스템까지 성능과 내구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총 83기의 첨단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시설이다.

시험부터 인증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시험 자원체계'를 갖춘 이 센터는, 국내 수소소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자립과 상용화를 견인할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는 연료전지의 장기 내구성이나 성능을 전문적으로 검증할 기반이 부족해 기업들이 자체 시험 설비를 갖추거나 해외 기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평가센터의 본격 가동으로 연료전지 관련 기업들은 신뢰성 검증, 성능 향상, KS 인증 지원 등 필수 절차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개발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센터는 장비가 순차적으로 구축되던 시기부터 운영을 병행하며 기업 지원을 지속해왔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54건의 중소기업 애로기술을 지원했으며, 시험평가 서비스를 포함하면 총 255건에 달하는 기업 지원 성과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내에 위치한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내부.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를 기록했다.

가운셀, 테라릭스, 미코파워, 에스퓨얼셀, 두산퓨얼셀과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다수의 국내 연료전지 중소·중견기업들이 센터를 통해 연료전지 스택 활성화, 시스템 효율 측정, KS 인증 획득, 장기 내구성 평가 등의 다양한 기술지원을 받으며 제품 상용화와 시장 진출을 앞당기고 있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14건의 애로 기술 지원과 62건의 시험평가가 이뤄지는 등, 센터의 활용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도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2025년부터는 구축된 83

기 전 장비를 본격 가동에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기업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치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센터장은 "장비 활용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센터를 통한 기술검증과 인증 지원이 중소기업의 기술 상용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배주현 전북자치도 청정에너지수소과장은 "평가센터는 전북 수소산업 생태계의 중심축"이라며 "2025년부터 더 많은 기업들이 센터를 통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마을까지 이어진 산불'



25일 정읍시 소성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근 마을까지 번지자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고창 산불, 3시간만에 큰 불 잡혀... 잔불정리 진행

강한 바람으로 정읍까지 번져... 한때 대응 1단계
소성면 금동마을 건물 15동 소실·주민 12명 대피

고창군의 한 아산에서 발생한 불이 약 3시간 만에 큰 불길에 잡혔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4분경 고창군 성내면의 한 아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헬기 5대를 포함한 진화장비 66대, 진화인력 314명 등을 현장에 투입, 산불 발생 2시간55분여만인 이날 오후 5시10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현재까지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인접 지자체인 정읍시 소성면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오후 4시 5분을 기준으로 고창·정읍소방서에는 대응 1단계가 내려졌다. 주불 진화가 완료되자 오후 5시 24분 대응 단계가 해제됐다.

일대로 번진 산불은 인근 민가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였다. 소성면 금동마을의 단독주택과 창고 등 15동이 화재로 소실됐고, 마을 주민 12명은 몸을 피했다.

지자체인 고창군과 정읍시는 재난문자·안전안내문자 등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대피를 요청하기도 했다. 해당되는 지역은 고창군 성내면과 정읍시 소성·고부면 등이다.

산림당국 등은 큰 불을 잡은 만큼 재발방 방지를 위한 잔불정리를 진행 중(오후 5시 30분 기준)이다. /뉴시스

새만금 신항 관할권 다툼 '전초전'

오늘 해수부 실무협의회... 전북자치도·군산시·김제시 참여
군산·김제 관할권 앞서 '격돌'... 최종 결정은 내달 중 예상

새만금 신항만 운영방식을 놓고 열리는 26일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실 무협의회가 신항만 관할권 다툼의 전초전 양상을 띠는 모양새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26일 중앙항만정책실무협의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군산시와 김제시, 전북자치도가 참여해 각자의 무역할 운영 방식을 주장할 예정이다.

현재 군산시는 새만금 신항을 군산항을 보충하는 항 즉 하위 항만으로 건설되는 소위 '원포트'(One-Port) 무역할을,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을 군산항 외에 별도의 무역할로 지정하는 '투포트'(Two-Port) 무역할 지정을 요

구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자문위)를 꾸려 무역할 운영방식을 논의했다. 자문위는 새만금 신항만은 '원포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잠정 결론을 냈다.

그동안 군산시는 '전북자치도가 해수부에 자문위 결과를 공개하라'고 주장했고, 김제시는 '전북자치도는 중립을 지키라'라며 자문위 결과를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해왔다.

이번 군산과 김제의 대립은 향후 새만금 신항만이 매립된 이후 관할권 주장의 전초전으로 흘러갈 예정이다. 관할권은 매립 예정이 아니라 매립

된 이후 그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신항만은 올해 준공을 시작해 2026년 개항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산과 김제는 이번 운영 방식 산정이 향후 관할권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새만금 신항만 운영 방식 결정을 위한 실무협의회는 26일 열리지만 이는 안건을 상정하고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면서 "최종 결정은 4월 중 열릴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뉴시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9경3라 익산여행

1樂 오감만족

볼거리, 체험거리, 먹거리 등 익산 여행 중 다양한 즐길거리

2樂 배움의 기쁨

역사여행을 통한 역사·문화 체험, 농촌 관망에서 자연 경관, 치유관광을 통한 자신의 건강

3樂 사랑

사랑속에서 사랑신화의 사랑, 익산 천만송이 사랑속에서 사랑신화를 통한 사랑 고백

Great Iksan

9경3라 익산여행

Smile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

이상의 교도소

보석박물관

원불교총부

나바위성당

아가페정원

고스락

웅포곰개나루